

받아쓰기 보도의 실태

‘저질 정치’는 ‘저질 보도’를 먹고 산다



관련 기사 보기

송수진 / KBS 프로덕션2 시사데스크 · 저널리즘토크쇼 J 기자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지난해 말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의 실검 1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2018년 11월 초 강 특보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 SNS에 올렸다. “국민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소수의 흥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근본도 헌법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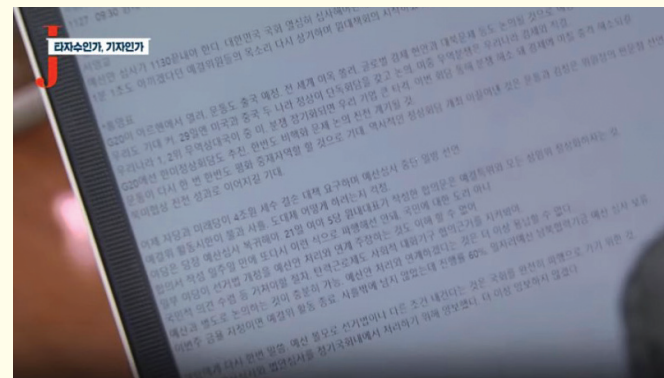
50개 넘는 매체가 받아쓰기

11월 5일 오후 한 경제 전문매체의 온라인 기사를 시작으로 수십 개의 매체들이 강 특보의 발언을 소재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당 법무특보가 못할 얘기도 아닐뿐더러 새로운 내용도 없었지만 50개 넘는 매체가 강 특보의 말을 그대로 받아 기사를 썼다. 주요 일간지 역시 온라인으로 해당 기사를 유통했다. 대부분이 강 특보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수준. 따옴표 저널리즘 그 자체였다.

기사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특히 SNS 글에 담긴 ‘개판’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한 대중의 찬반 여론이 급속도로 더해지면서 그날 오후 내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강 특보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이렇다 할 외부 공식 활동도 많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에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강 특보가 문제의 글을 SNS에 올린 시점은 11월 3일 오후 5시 58분으로, 실검 1위에 오르기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한 경제 전문매체가 11월 5일 오후 1시 25분 강 특보의 SNS 내용을 발굴해 ‘강연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좌파 정권 개판’이라는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강 특보의 발언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강 특보는 실검 상위권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할 대외 활동이 없던 한 정치인을 실검 1위로 등극시킨 것은 그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쓴 한 온라인 매체의 첫 기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로 득을 본 건 강 특보뿐만이 아니다. 강 특보의 발언을 처음 게재한 기사는 조회수 76만



보수 정치인의 막말은 캐릭터화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출처·KBS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회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 5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에 올랐다. 야당 지지자의 공감과 여당 지지자의 분노, 해당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지만 그 반응이 클수록 더 많이 공유되고 댓글이 달렸다. 기사의 클릭수가 늘어날수록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언론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강 특보의 발언을 처음 다룬 이 기사는 투자 대비 이익이 무척 높았을 것이다.

주어·서술어만 추가하면 기사

이렇게 뉴스 가치가 모호한 정치인의 SNS 발언이 몇 번의 ‘복붙’을 거쳐 기사가 된 뒤 뉴스 소비자의 SNS를 떠돌며 거대한 여론을 만들어내자, 언론사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좋다고, 정치인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속에서 ‘따옴표 저널리즘’은 정치부 기자들의 기사 쓰기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각 당의 무게감 있는 중량급 정치인은 물론 강연재 법무특보나 바른미래당 이연주 의원처럼 거센 발언을 자주 쏟아내는 정치인도 SNS 취재의 주요 취재원이다. 정치인의 SNS에 뜬 최신 글 가운데 화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새로운 내용이나 논쟁적 표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복사한 뒤 기사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으면 된다. 중복된 표현 등을 삭제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추가하면 기사 하나가 금세 완성된다. 뉴스 소비자들은 정치인의 SNS 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하루 종일 포털 정치 뉴스란을 통해 소비한다.

한편 SNS 못지않게 정치인이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쏟아낸 말 역시 중요해졌다. 라디오 콘텐츠가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유통되면서 라디오 출연을 웬만한 TV 출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늘었고, 그만큼 의미 있는 내용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각 방송국의 주력 라디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모두 둘러보고, 정치인의 발언을 꼼꼼하게 확인해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즉시 기사로 쓴다. 기존에 나온 말이라도 표현 강도가 더 강해졌다면 기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도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작성된 기사를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SNS에 올라온 글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을 기사화하는 것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사 가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꼭 기사화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될 정도의 SNS 발언은 사실 많지 않다. 무조건 기사화가 되는 중요한 발언이라면 더 큰 바이럴을 만들기 위해 기성 언론을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안 쓰면 데스크로부터 욕치레

온라인 뉴스 소비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KBS 기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의 SNS 글을 그대로 따오는 따옴표 저널리즘식 기사 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다. SNS 기반 기사는 ‘발생 기사’에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찾을 때 없으면 데스크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자 입장에서는 ‘일단 쓰자’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고, 그런 기사를 쓰다 보면 어느새 또 다음 일정이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 보좌진의 일탈,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깊이 있는 시각을 담은 품격 있는 정치 해설 기사… 이상은 높디높지만 현실은 따옴표 저널리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회 출입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에 다 말, 말, 말…. 말을 행기는 일로 오전을 다 보내죠. 오후에는 국회 상황에 따라 회의를 행기거나 또 여야가 만나는 협상 장소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죠.” (A기자, 국회 출입 3년 차)



한 정치인의 SNS 발언이 몇 번의 ‘복붙’을 거쳐 기사가 된 뒤 뉴스 소비자의 SNS를 떠돌며 거대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현실에서 ‘따옴표 저널리즘’은 정치부 기자들의 기사 쓰기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출처·KBS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문제는 이런 따옴표 저널리즘식 기사 쓰기가 기자들의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인의 말과 글을 인용해 기사를 계속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기사 쓰기 과정을 점차 ‘정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때도 있지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깊이 들여다보는 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신문에서 주말용으로 한 번씩 뭐 선임기자들이 쓴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B기자, 국회 출입 2년 차)

문제는 이런 따옴표 저널리즘식 기사 쓰기가 기자들의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인의 글과 말을 인용해 기사를 계속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기사 쓰기 과정을 점차 ‘정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때도 있지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SNS에 올라온 글을 충실하게(?)

반영하면 기사 하나 정도는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 한 동료 기자는 ‘삭제 신공’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아예 빼고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따옴표 저널리즘식으로 기사를 쓰면 쓸수록 기자가 취재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묻지 않고, 의도적으로 궁금한 것을 못 본 척하며 기사를 쓰는 비정상적인 저널리즘 행위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삭제 신공’ 비법도 전수

이런 지경에 이르면 정치부에서 얘기하는 특종이나 단독은 모두 정치인의 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랬다. 토론회를 가든, 기념행사를 가든, 상임위를 가든, 그 어떤 행사든 늘 정치인의 말에만 집중하게 됐다. 기사 첫 줄은 대부분 ‘○○당 ○○○ 대표가 이런 현안에 대해 저런 입장을 거듭 밝혔다/재확인했다/재차 강조했다’ 식이다.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받아치고 또 받아쳤다. ‘행사’라는 형식 아래 많은 진실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을 테지만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미리 내가 서두를 필요 있나? 때가 되면 정치인 ○○○이 말을 하겠지’처럼 정치인 같은 생각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됐다.

따옴표 저널리즘식 기사가 확산되면서 정치인들은 기성 언론에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SNS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정치인들이 기성 언론 대신 개인 SNS나 유튜브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SNS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인터뷰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 없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답변이 꼬여 말실수할 위험도 없고, 귀찮을 때는 보좌진에게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왜 우리랑은 단독인터뷰 안 하는 건데요?’라고 따지는 기자들의 불만도 없다.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은 기성 정치인에게도 점차 관찮은 소통 창구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1월 초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 SNS에 올렸다.

(출처-강연재 특보 페이스북 캡처)

강하게, 튀게 표현할 경우 운이 좋으면 단독기사로 나갈 수도, 실점 1위를 할 수도 있다. 한 20년 차 보좌관은 “만날 정책 발굴하면 뭐해. 보도자료 내면 어렵다고 안 쓰고, 시의성이 없다고 안 쓰고 그러는데. 관심 끌려면 막말이 제일 좋지. 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한테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당장 급하면 하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치인의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뉴스들이 신문 정치란에 넘쳐나면서 깊이 있는 정책 보도는 국정감사 시즌이나, 그것도 ‘단독’ 명찰을 달아야만 보도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기자들 자질론까지 이어져

정치인의 SNS를 ‘복붙’한 정치 기사들이 증가하면서 뉴스 소비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 징후는 ‘저널리즘 토크쇼’

시청자들이 제22회 ‘타자수인가, 기자인가… 따옴표 저널리즘’ 반방송 영상에 달아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재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사실 확인은 더 안 해…’. 이리하면 언론의 자유가 무슨 필요인가? 언론을 왓치독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시청자랑 차이가 없다. 받아쓰기는 솔직히 초등학교가 더 잘하겠다.’ (A씨)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해관계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공생관계죠. 그래서 오늘날 기레기들이 탄생했구요…’. (B씨)

‘기자들의 영혼 없는 타자 치기 저널리즘의 결과 속을 제대로 지적한 이번 방송… 현직 기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기자로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C씨)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작성된 정치 기사가 늘어날수록 기성 기자 집단을 바라보는 뉴스 소비자들의 불신은 점차 커질 것이다. 클릭 몇 번만으로 관심 있는 정치인의 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방금 들은 저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 글에 당당하게 바이라인을 붙여 ‘기사’로 출고한 정치부 기자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기자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의 SNS가 새로운 소통 창구로 각광받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기자들도 기대가 컸을 것이다. 평소 만나기 힘든 정치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큰 어려움 없이 확인해 기사화할 수 있으니 강력한 취재 소스가 생긴 것과 다름없었을 테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면서 기자들은 저널리즘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기자 집단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나아가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치인의 말은 취재의 끝이 아니라 취재의 시작”이라는 CBS 변상욱 대기자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